

한국-OECD 디지털금융 라운드테이블 개최

- 아세안(ASEAN) 국가 등의 디지털 금융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요인의 해소 방안과 발전방향 논의

금융위원회는 3월 18일(월) ~ 19일(화),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금융연구원(KIF)과 공동으로 「한국-OECD 라운드테이블: 아세안의 디지털 금융에 관하여(OECD-FSC-KIF Roundtable on Digital Finance in ASEA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아세안(ASEAN) 국가들의 디지털 금융을 주제로 각국의 디지털 금융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위험요인의 해소 방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행사는 아시아 및 OECD 회원국의 재무 및 금융 규제 당국, 중앙은행, 기타 주요 금융기관 관계자 등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디지털 금융에 관한 글로벌 동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 쏘 행사 영어로 진행

< 韓 - OECD 디지털금융 라운드테이블 개요 >

- (일정/장소) 3.18(월)~19일(화) /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세부내용) ①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②이항용 금융연구원장, ③OECD Carmine Di Noia 금융기업국장 개회사 및 디지털 금융 관련 주제별 전문가 발표·패널토론 등 진행
- (1일차) 디지털 자산(CBDC, 가상자산 등) 관련 글로벌 시장 동향 등

* 주제 : ① 디지털자산, CBDC, 토큰증권 기반 금융: 아시아의 관점
② 금융포용의 관점에서 디파이(DeFi)의 한계
③ 아세안과 전 세계의 디파이 및 가상자산 시장
④ 금융 부문의 사이버 보안

- (2일차) 금융 부문 내 인공지능(AI)의 활용 등

* 주제 : ① 금융 부문의 인공지능 활용: 아시아의 관점
② 아시아 지역 금융 내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활용

※ OECD의 요청에 따라, 금번 라운드 테이블의 각 세션 **참관은 사전 등록한 참석자에 한하여 허용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쏘 세션 비공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통한 금융혁신이 금융산업의 생산성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적절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산업에서 국가 간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제기구, 아세안 국가를 비롯한 글로벌 주요국들과 최신 금융 트렌드를 공유하고 국제적인 규율체계와 일관성을 갖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한국-OECD 디지털금융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되는 글로벌 동향 등을 향후 정책방향 마련에 참고하고, 다양한 국제기구·국가들과의 금융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주요 행사내용: <https://www.oecd.org/finance/financial-markets/roundtable-digital-finance-asean.htm>

[별첨]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개회사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이석란 (02-2100-2530)
	금융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정수종 (02-2100-2535)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